

중기부 ‘쌍두마차’, 현장 소통으로 中企·소상공인 챙긴다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노 차관, 모태펀드 투자업계 간담회
“글로벌 유니콘 도약 기반 강화”

이 차관, 플라스틱 대·중기 협약 참석
제과협회 만나 중동궤 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쌍두마차’인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정책 대상자들의 애로 청취, 정책 발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병권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과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 협약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고 상생협약 체결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식품 분야 수요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삼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분부가 포함된 9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한국플라스틱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그리고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관련 대·중견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문제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및 지체 상금 면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협약 참여 기업에 대해 동반성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열린 ‘플라스틱 중소기업·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장지수 반영, 포상 우대,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협약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이날 제과점업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별도 간담회를 갖

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관련 업종 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스케일업 및 장기) 운용사, 투자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운용했던 펀드들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을 위해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서 인내자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 보스반도체, 콘텐츠테크놀로지스(VIC), KB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스케일업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 차관은 “유니콘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면서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장기·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행사 41회, 이 차관은 행사 39회 출신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6곳 지원사업 불법 개입 민관 협력으로 막는다

중소벤처, 소상공인 피해 방지 노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이 민간 플랫폼과 함께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를 막기 위해 힘을 모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은 9일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민간 플랫폼인 숭고, 크몽과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 근절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의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비상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및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홀딩스, 아르헨 리튬 추가 확보... 생산기반 확대 탄력

캐나다 LIS 염호 광권 인수 마무리
아르헨 리튬자원 1500만톤 확보
연산 5만톤 생산기반 확대 기대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염호 추가 인수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리튬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자원 확보부터 생산, 사업성 측면까지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을 통해 캐나다 리튬사 우스(LIS)가 보유한 움브레 무에르토 노스(Hombre Muerto North) 염호 광권 100% 인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



루이스 루세로(Luis Lucero) 아르헨티나 연방 경제부 광업차관(왼쪽부터),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연방 경제부 장관, 다니엘 곤살레스(Daniel Gonzalez) 아르헨티나 연방 경제부 선임차관(RIGI 위원장), 박현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장이 현지시간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리튬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홀딩스

자 계획을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인수 금액은 약 6500만달러(약 950억원)다. 움브레 무에르토 노스 염호는 약 158

만톤 규모의 리튬 매장량이 추정된다. 리튬 함량이 높고 불순물이 적어 고품위 자원으로 꼽힌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인수로 기존 보유 광권을 포함해 아르헨티나에서 매장량 기준 총 1500만톤 규모의 염수리튬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감안하면 최소 300만톤 이상의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기차 약 7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포스코홀딩스는 광권 확장을 통해 개발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1단계 공장과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2단계 공장에 추가 자원 확보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중장기 생산능력 확대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한진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레퍼리 ‘K-뷰티 셀렉트 스토어’의 물류를 수송했다.

한진 도쿄 K-뷰티 행사운송 글로벌 특화물류 존재감 한국~도쿄 화장품·행사물자 배송

한진이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 일대에서 열리는 ‘K-뷰티 셀렉트 스토어(Select Store)’ 행사 자재 및 물품 운송을 수행하며 특화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9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K-뷰티 셀렉트 스토어’는 K-뷰티와 K-컬처를 선도하는 뷰티테일(Beauty+Retail) 기업 ‘레퍼리’가 주관하는 첫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셀렉트 스토어다.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커머스가 결합된 복합 행사로, 한진은 행사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집기류와 비품뿐만 아니라 온도와 충격에 민감해 안전한 이동이 필수인 화장품을 한국에서 도쿄 현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했다.

한진은 성공적인 행사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레퍼리 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승호 기자

LS에코에너지·LS에코첨단소재, 구동모터 공급망 구축 맞손

구동모터 핵심부품 협력 본격화
희토류 금속·권선 공급망 연계
전기차·로봇·방산 수요 확대 대응

LS에코에너지와 LS에코첨단소재가 구동모터 핵심부품 분야에서 협력에 나서며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는 9일 ‘구동모터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과 방산, 전

기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겨냥해 구동모터 핵심부품의 공동 개발과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동모터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영구자석과 권선(구리선), 코어 등 3대 핵심 부품의 성능이 모터의 효율과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구동모터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기차에는 차량

1대당 1~2개의 구동모터가 탑재되며 도심항공교통(UAM)과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기차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구동모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모터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핵심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를 낮춘 비중국 공급망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사는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과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LS에코에너지는 최근 희토류 영구자석용 금속 사업에 착수했고 LS에코첨단소재는 현대자동차와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권선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희토류 금속과 권선을 연계해 구동모터 핵심부품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S에코첨단소재의 북미 현지화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글로벌 완성차와 로봇 업체에 대한 대응력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관희 기자